

## 韓牛의 分娩時 子宮頸管 및 膨部의 脫出에 대한 手術處置

韓基鎬\*

### 緒言

韓牛의 경우 대부분 2月과 5月 사이가 집중적으로 송아지를 生産하는 時期이다. 근년에 와서는 產前產後에 子宮頸管脫, 膨脫 및 子宮脫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產後의 子宮脫은 그 處置에 있어서 別問題가 없으나, 분만시 膨 및 子宮頸管脫出은 困難한 때가 王왕 있다. 獸醫師의 來診을 要請하였을 때는 膨, 頸管脫이 며칠씩 되었고 母体는 分娩陣痛으로 지쳐있는 것이 허다하다.

母体는 橫臥 또는 앓은 자세로 있고 直腸検査를 하면 胎兒는 產道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심한 경우는 直腸脫까지 되어 보기가 애처롭다. 頸管을 擴張시키고자 하나 努力은 虛事이다. 고무타이어처럼 단단하여 擴張은 되지 않고 時間만 浪費하다 끝내는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축주에게 母体가 生存時 판매하기를 勸한다. 고기값으로 精肉店에 넘어가고 畜主는 한꺼번에 두 마리의 소를 잃어 명하니 있고 수의사로서의 뒷맛도 그리 깨끗한 편은 아니다.

이에 子宮頸 및 膨이 탈출된 難產時 左側 또는 右側 膨部를 切開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절약되고 產道(birth canal)에서 直接 胎兒를 引出할 수 있는 筆者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바이다.

\*漢陽家畜病院

### 手術方法

전신마취제(럼풀 또는 키시라진)를 체중 300kg~400kg에 2~3ml를 근육주사한다. 마취에 도달되면 脱出된 部分을 생리식염수로 깨끗히 세척하고 手術하고자 하는 部位를 切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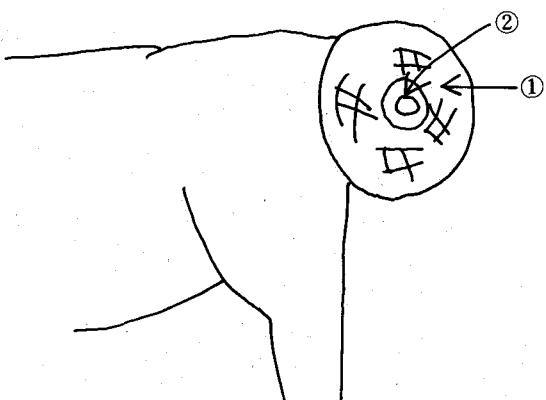


그림 1. 子宮頸管 및 膨部의 脱出

① 膨部, ② 子宮頸管

이 때 注意할 點은 그림 1에서 ①의 膨部分을 切開해서는 안된다.

膨部分을 切開하면 出血이 많을 뿐더러, 止血시킨 후에도 脂肪物이 많이 나오고 切開創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면 태포는 안 잡히고 子宮壁이 感知된다.

理解를 쉽게 하려면 큰 봉투를 쥐고 밑을 위로 밀어넣고 생각하면 쉬우리라 생각된다. 반드시

시 子宮頸을 切開하는 것이 이 手術의 key poin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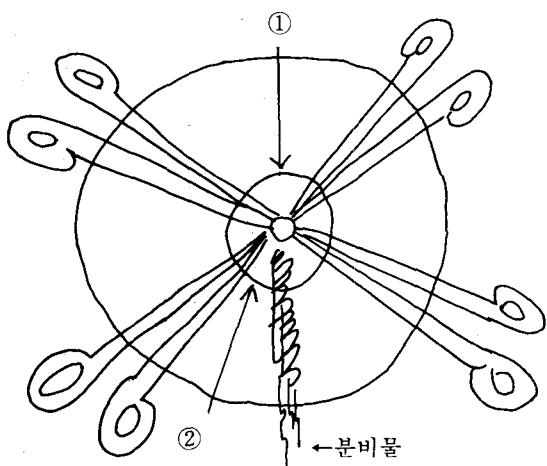


그림 2. 子宮頸管外口의 上部(①)와 下部(②)에 지 헬검자 장착

子宮頸을 切開하기 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鉤鉗子로 잡아 놓은 다음 ①과 ②의 부분을 切開한다.

無鉤鉗子로 잡으면 頸管部分이 견고하고 弹力이 있는데다가 매끄럽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는다.

頸管部位를 切開하면 出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

참고로 腹部를 切開할 때 出血量은 500~1000 ml가 되지만 頸管部는 그렇게 걱정할 必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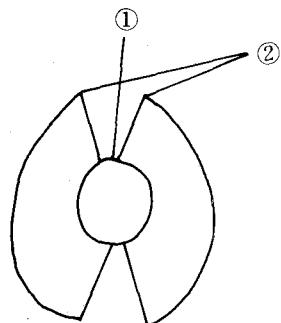


그림 3. 子宮頸管外口의 上下부 切開후 모식도  
① 内側, ② 外側

없다.

切開가 끝나면 겸자를 다 풀고 손을 넣으면 태포가 잡힌다. 破水를 시킨 다음 胎兒를 引出한다. 송아지가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胎盤을 꺼내주고 子宮內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한다. 테트라 보러스를 子宮內에 넣어 준 다음 頸管縫合을 실시한다. 봉합에 있어서는 그림 3의 ①의 부분은 連續縫合을 실시하고 설파닐러마이드를散布해준다. ②의 부분은 Lembert씨 봉합을 하 고 역시 설파제를 산포한다.

頸管縫合이 끝나면 脱出部分을 밀어 넣은 다음 陰唇을 Buhner씨 방법으로 ring tie하여 준다.

그 다음 外陰部를 청결하게 소독하고 테라마이신 20ml를 근육주사하고, 노바록 500ml를 정맥주사한다.

### 手術經過 및豫後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나면 어미소는 송아지를 활아 주거나 마른 짚을 먹는 것이 통상이다.

手術後 2日째에는 母体는 거의 絶食 상태이고 体温은 39.0~39.5°C이며 脈搏 및 呼吸數는 정상이다. 胃運動은 약화되어 있다.

10% 포도당 1,000ml에 레스치오닌-C 50ml를 혼합하여 정맥주사하고, 테라마이신 20ml를 근육주사하고 옥시토신 15~20IU를 근육 주사한다. 消化劑를 經口投與하고 畜主에게 사료를 주지 않도록 권장한다.

術後 3日째에는 2日째와 같은 방법으로 하 고 피린을 20ml 피하주사하여 준다.

그동안 소를 관찰하면 소는 정상적인 반추운동을 한다. 젖도 잘 나오며, 앓고 서는 것도 정상이며 4~5일째부터는 사료를 정상적으로 섭취하지만 畜主에게 사료급여는 점차로 늘려 가도록 일러 주는 것이 좋다.

豫後는 아주 양호하며 外部에 수술흔적이 없어 보기 좋다.